

회의록

회의일시	2017년 03월 31일 (금) 17:00	북촌공예원	작성자	정윤주 선임
장소 참석자	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4길 45-13 북촌공예원 교육실 - 북촌공예공방작가 19명 - 서울디자인재단 전기현 팀장, 정윤주 선임, 도종현 선임, 함형철 선임			
회의안건	1. 2017년도 북촌공예원 운영계획(안) 공유 2. 사업의 방향성 및 컨텐츠에 관한 의견 수렴 3. 질의 및 응답			
회의내용	내용		비고	
	1. 정윤주 선임 1) 개회 2) 회의진행순서 3) 인사말 4) 공방작가 자기소개 5) 2017년도 북촌공예원 운영계획(안) 공유(파일첨부) 6) 참석공방 방명록 작성 및 북촌공예원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(총18팀)			
	2. 전기현 팀장 1) 북촌공예원 자체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,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가능함 2) 작년부터 북촌 작가분들이 작가/사업체 의 유통/브랜드화를 요청하였음.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디자인공예산업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진행 할 예정. 3) 2018년도 공예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도 재단에서 판매체험공간(아트리움)과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도 있음 4)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정을 잡아야 하니 작가분들께서 원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신 후 미리 요청사항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. 5) 재단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디자인/공예/패션/건축 등의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타 분야와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.			
	3. 질의응답/건의사항 1) 최은경(전통혼례보공방) : 최근 본인 작품의 카페제품이 시중에 나 오고 있는데, 작품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? 전기현 팀장 :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총괄하는 곳은 '서울지식재산센터'이다. 이와 관련된 교육과 정보 등의 내용을 공유하겠다. 이영욱(진주셀) :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데,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			

대방이나 관련 부서에서 알 수가 없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다.

2) **최정인(우리빛깔공방)** :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싶다. 제 의견은 단순히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된 상품이 아닌, 일본의 지역상품처럼 전통을 재해석 한 상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. 마케팅 라인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, 해외/전시 정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줬으면 좋겠다. 전체공방 지원도 좋지만, 북촌 공예 대표 스타를 만들어주는 인큐베이팅을 해달라. 해외진출에도 기회를 제공해달라.

3) **이영옥(진주셀)** : 저희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정윤주 선임님께서 리드를 해주시면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. 저작권 관련 수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.

전기현팀장 : 지식디자인센터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보겠다.

심화숙(북촌전통공예학원) : 저작권 관련 수업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.

이영옥(진주셀) : 최근 전안법 등 새로운 법이 시행되려고 하고 있다. 특히 현대공방 작가들은 관련 수업이 필수라고 본다.

전기현팀장 : 일단 디자인이 출시된 후에는 먼저 저작권 선등록을 해야한다. 전시를 한 경우, 그 후 출원이 되지 않더라도 100일 이내 등록해야한다. 다음에 지적재산권관련 교육할 때 본인 작품을 가져 오시면 바로 답을 해줄 수 있으므로, 작품을 가져오시면 좋다. 전시한 상품 말고 그 이전 것을 가져오시라. 서비스디자인이라고 고객들 니즈를 어떻게 파악해서 디자인을 하는것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다. 마포센터와 같이 진행할 것이므로 교육 할 때 일정을 공유해드리겠다.

특이사항

- 3/31일 총 23명이 참석, 공예원이 많이 협소한 관계로 다음 정례회의는 인원이 많을 경우 DDP에서 4시 정도 진행
- 각 주제에 맞는 교육 관련하여 스타강사 섭외(마포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교육/컨설팅)
- 유통 관련하여 현재 재단과 관련한 롯데, 신세계, 현대백화점을 섭외하여 그들과 소통하고 니즈를 파악하여 공략